

44차 전국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기록자	확인자	의장
		박준성	홍민지	오태양
일 시	2020년 6월 28일(일)		장 소	온라인
출결 상황	분 류	재 적 인 원	출 석 자 명 단	
	성원인원	25명	오태양, 김소희, 박보영, 정민권, 손상우, 이재곤, 문희현, 손주희, 양은영, 조기원, 홍민지, 우인철, 최지선, 김민형, 최시은, 박수정, 유애림, 박세미, 김나현, 정기영	
	참 석 자	20명		
	불 참 자	5명	안재호, 최연석, 이재현, 강주희, 이주현	
안건 상정 및 심의 <input type="checkbox"/> Secret <input type="checkbox"/> Open <input type="checkbox"/> Local				
<p>[의결안건 1] 전국운영위원회 성원조정안 (상임운영위)</p> <p>■안건제안</p> <p>1.변경안</p> <p>1) 신규선임 : 박준성 (중앙당 사무국장)</p> <p>사유 : 중앙당의 사무국의 신설과 신규선임을 사유로 전국운영위원회 성원을 변경하고자 함.</p> <p>2) 사임 : 정기영 (부산시당 사무국장)</p> <p>사유 : 정기영은 28차 전국운영위원회부터 부산시당 사무국장 직책의 당연직 자격으로 성원으로 활동하였음. 그러나 직장업무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지난 1년간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 8회 불참하게 되었음. 여러 차례 소통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가 권고하고 부산시당 대표와 본인이 동의하여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음.</p> <p>참고) 2019.6~2020.5 전국운영위 불참 회수 :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40차, 43차 8회 불참</p> <p>■주요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선임자에 대한 활동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추가해서 공유하면 좋겠음. <li style="padding-left: 20px;">=>창당 초기부터 당원이었고, 지난 2월부터 중앙당에서 당직 활동을 시작함. 지난 총선에도 역할을 맡아서 함. 100일간 직책 없이 활동하였고 그동안의 활동으로 보아 국장 역할을 할 의지도 있고 충분히 역량도 된다고 판단하여 국장으로 임명함. 현재 중앙당에서 당사 및 당원 관리 및 사무업무 등 기존 행정국과 조직2국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기로 함. - 부산 사무국장 사임이 아닌 전국운영위 성원 조정이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음. <p>□의결</p> <p>-찬성(18) : 오태양, 김소희, 박보영, 정민권, 손상우, 이재곤, 문희현, 양은영, 조기원, 홍민지, 우인철, 최지선, 김민형, 최시은, 유애림, 박세미, 김나현</p> <p>-기권(2) : 손주희, 정기영</p>				

[의결안건 2] 중앙당 명칭 변경 제안 논의 (상임운영위)

■안건제안

1.제안배경

- 지난 39차 전국운영위원회에 서울시당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당에서 제안한 안건을 다시 공유하고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제안함.

2.상임운영위원회 입장

- “중앙당”은 선거법/정당법/당헌에 명기된 공식명칭이므로 중대한 결점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단, 서울시당에서 제안한 문제의식을 완화하는 다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면 좋겠음.

■주요의견

- 내부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용어를 변경하자는 제안임. 문제의식을 완화하는 방법엔 동의함.
- 언론 보도 시 중앙당으로 쓰고 있어서 다른 용어로 쓰게 될 경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임. 문제의식에는 동의함. 우리가 발언할 때 중앙이라고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중앙당으로 쓰면 좋겠음. 그냥 중앙이라고 쓰면 공식기구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모든 것의 중앙이라고 느껴짐.
- 반대2, 기권5이 있어 이 안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의결

-찬성(13) : 오태양, 정민권, 손상우, 이재곤, 양은영, 조기원, 홍민지, 우인철, 김민형, 최시은, 유애림, 박세미, 김나현

-반대(2) : 박보영, 최지선

-기권(5) : 김소희, 손주희, 문희현, 박수정, 박준성

[심의안건 1] 전국운영위원회 텔레중계 변경건 (상임운영위)

■안건제안

1.제안내용

- 기존의 전국운영위원회 텔레중계 장소를 마음의 온도방에서 당직자전체방으로 변경하고자 함

2.제안사유

- 마음의 온도방에 활동하지 않는 활동가 및 탈당한 당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운영위원회 내용은 미래당 전략의 중요부분을 논의할 때가 많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변경하고자 함.

3.마음의 온도방 운영유지

- 마음의 온도방은 당직자와 활동가들의 소통창구로써 가입이 되는 일정한 조건(폴리스쿨을 이수하고 시도당 대표가 승인한 당직자, 활동당원)이 되면, 시도당 대표가 제안하여 초대하고 있으며,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사안 발생 시 운영자의 권한으로 제제가 가능함. 또한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탈퇴가 가능함.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마음의 온도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운영상의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마음의 온도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였음.

■주요의견

-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방에서 중계해줘서 좋았음. 내용을 전달받아서 공유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공

유받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안하게 된다니 아쉬움.

▶텔레중계 변경건 찬성 : 14명 / 반대 : 2명 / 기권 : 5명

- 보완책으로 전국운영위 회의록을 회의 끝나고 마음의 온도방에 올리면 좋겠음.
- 보안 문제가 있어 이 안을 제안함. 공유 문제도 여기서 엮여서 나오니깐 혼란이 있음. 보안은 보안대로 지킬 필요가 있음. 이것과 별개로 공유의 문제가 있음. 보안은 필요 없는데 공유가 안 되는 문제는 다른 안건인 것 같음.
- 보안사항이 될만한 예시 : 당의 전망에 관한 주요논의 / 선거전략 / 회계/당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 쟁점사항에 개인 실명이 거론될 경우 / 당원간 분쟁, 갈등, 성폭력 등의 징계가 논의되는 사항 / 연대사업에서 다른 정당/단체와의 관계성 (외교적 측면)
- 당원관리를 하다보니 탈당하거나 활동 중지한 당원 체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듦. 그런 조직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되는 방식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음. 지금 마음의 온도 방은 자유롭게 된 부분이 있어서 수위 조정이 필요함. 전국운영위 회의는 미래당의 가장 주요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임. 마음의 온도방과 성격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음.
- 작년 총선 논의(연대)할 때 타 정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건 문제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음. 준비하는 실무진 측면에서는 어떤 건 올려야 되고, 어떤 건 안 올려야 되는지 고민이 됨.

▶7기 플리스쿨 이후 당직자 방은 정비하기로 함. 이후 전국운영위 텔레 중계는 당직자방에서 진행하고, 마음의 온도방은 공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보기로 함.

[심의를안건 2] 미래당 미래전략 TF 운영계획 및 미래전략 논의 (미래전략TF)

■안건제안

1.취지

-총선이후 미래당 전망에 관한 통합 전략을 연구하고, 논의제안서를 작성하여 상임위, 집행위, 전국운영위 논의와 합의 효율을 높이고자함.

2.개요

- 기간 : 6.15~활동가대회 전까지(2개월)
- 권한 : 45,46차전국운영위 안건제안 책임그룹
- 구성 : 오태양(책임), 홍민지 사무총장, 유애림 행정국장, 최지선 미디어국장, 박준성 사무국장 5인
- 일정 : 주2회 (각 3시간 회의)
- 역할 : ①연구조사 ②문서작성 ③안건제안
- 책임 : 오태양 대표
- 결정 : 상임운영위에서 미래전략TF 계획과 구성을 인준받아 시행함.

3.TF 5대 논의과제 정리

- 1) [이념] 미래당 이념좌표와 정치전략
- 2) [선거] 2002년 대선-지방선거 전략
- 3) [의제] 미래당 의제
- 4) [인물] 인물경쟁력과 리더십
- 5) [조직] 조직화

■주요의견

▶다음 45차 전국운영위에 5대 의제 등 심화한 내용을 가지고 와 논의하기로 함.

다음회의일정	2020년 7월 19일	회의비(지출시)	
--------	--------------	----------	--